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학급 만들기

노정
(상주중학교 교사)

I. '새로운 시작'이 주는 두려움과 설렘

저는 휴직과 복직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직을 앞두고 선생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실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동료나 후배 교사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학교로 발령을 받았을 때의 제 마음을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만 20년을 훨씬 넘게 근무했던 제가 남자 중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았을 때 느낀 가장 큰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아이들을 만나는 데 대한 두려움, '남자 중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뒤처지거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참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남자 중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 그들을 대하는 방법, 그들과 재미있게 수업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특히 첫 만남과 첫 수업,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완전초보'의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를 했더니 두려움이 조금씩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과 조금 커진 설렘을 안고 중2 남학생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했던 걱정들은 기우였습니다. 저는, '나는 남중 교사 체질이구나'라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우'가 없었더라면 저는 실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걱정들이 저를 준비하고 또 준비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선생님들의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씁니다. 새로 시작했을 때의 저처럼 어쩌면 부담감과 두려움을 안고 계실 선생님들께, 그 두려움을 설렘과 기대감으로 바꾸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I. 준비하는 담임 되기

1.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학급을 운영할 것인가?

학급 담임은 학급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학급의 분위기는 학급을 구성하

는 학생들의 전체적 성향,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하지만 담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학급 분위기는 아주 크게 달라집니다.

혈기왕성한 젊은 교사였을 때 저는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애정과 욕심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저의 자존감과 아이들의 자존감이 함께 내려가 버렸습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저의 학급 담임으로서의 철학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돕되 내 마음대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 설사 그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약이 되는 일이라도, 아이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효과는 없다. 담임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다.”

2. 담임의 학급 운영 철학을 학생들에게 말하고 도움 구하기

새 학기가 시작될 때 항상 학급 운영 방침을 학생들에게 말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다음은 올해 제가 저희 반(중학교 3학년)에 붙여 놓은 ‘급훈’과 ‘학급 운영 방침’입니다.

급훈 :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는, 멋진 우리 2반

♥ 우리 2반 친구들은 ♥

- ★ 우리반의 모든 일을 함께 상의하고 함께 해결합니다^^
- ★ ‘다름’을 인정합니다^^
“재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생각해서 화내거나 싫어하기보다, “재는 나랑 다르구나.”라고 인정해 줍니다^^
- ★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싫은 말이나 행동은 나도 상대방에게 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 친구가 단점을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도와주고 기다려 줍니다^^
- ★ 싸움은 하되 서로의 몸과 마음이 다치지 않게!!
 - ☆ 싸운 후에는 그날이 가기 전에 서로(샘도 포함^^) 이야기해서 풀니다^^
 - ☆ 싸운 후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5초간 생각해 보고 나서 말합니다^^
- ★ 하기 귀찮은 일(청소 등)이 있더라도, 다른 친구들을 생각해서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3. 학기 초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¹⁾

가. 담임의 편지와 명함 : 학생들에게 담임으로서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씁니다. 2020년에 쓴 편지를 보니 아직 만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간단한 인사와 소개, ‘이런 담임이고 싶습니다’, ‘이런 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훈과, ‘우리가 기억할 것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명함엔 담임의 이름과 전화 번호, 학습카페 주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 저는 이것을 학생들에게 주면서 인사를 합니다.

나. 학생들에게 나눠 줄 설문조사지 : 학생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등, 나중에 이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묻습니다.²⁾

다. 학부모님께 드리는 설문지도 만듭니다. 이것도 앞의 글에 있습니다.³⁾

라. 학생들 책상에 붙일 이름표, 사물함에 붙일 이름표도 만듭니다. ⁴⁾

마. 우리반 만의 모듬일기(또는 학급일기)공책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재작년과 작년엔 국어일기와 중복되어 학생들이 힘들어할까봐 하지 않았습니다. 모듬일기를 매일 돌아가며 쓰도록 해서(또는 학급일기를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며 쓰도록 해서) 한 달치 학급 신문으로 만든 적도 있고, 1년 문집으로 만든 적도 있습니다. 가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둔 제자가 옛날 문집을 보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 학급회 규칙을 만듭니다.⁵⁾

사. 반장, 부반장 출사표 : 학생들이 반장에 출마했을 때 한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장을 뽑은 학생들이, 자신들이 뽑은 반장이 공약을 잘 지키는지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장 부반장 출사표는 학기가 끝날 때까지 교실에 붙여 둡니다.

아. 역할분담표 : 학생들이 학급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한 명 한 명 첫 학급회를 통해 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생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주인공이 됩니다.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자율활동 써 주기도 참 좋습니다.

자. 저는 청소당번표도 1년치를 미리 만들어 줍니다. 3월초에 학급회에서 교실 청소는 몇 명으로 하는 게 좋을지, 복도 청소는 몇 명으로 하는 게 좋을지,

1) <http://blog.daum.net/nojeong> 에 가시면 모든 파일이 있습니다.

2) 2020년에는 네이버폼 형식으로 만들어서, 학급 독방에 올렸습니다.

3) 이것도 네이버폼 형식으로 만들어서, 학부모님 독방에 공지로 올렸습니다.

4) 이 양식도 위의 블로그에 있습니다.

5) 처음에는 교사의 학급 운영 방침을 ‘가’와 같은 방법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나 차츰 학급회의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규칙을 만들게 합니다. 2019년에는 학급회의를 수차례 걸쳐 저희반만의 ‘7조법금’이 만들어졌습니다.

특별구역 청소는 몇 명으로 하는 게 좋을지... 등등을 상의해서 1년 청소당번표를 만들어서 교실에 게시합니다. 청소는 매달 바뀌도록 했습니다.

차. 칭찬 쿠폰을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교실 소독을 하거나, 남이 보지 않아도 청소 열심히 하는 학생, 교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닫는 학생.. 등에게 예쁜 동물 도장을 하나씩 찍어 줍니다.

카. 자리 배정 프로그램 : 학기초엔 “선생님이 너희들 이름 다 기억할 때까지, 미안하지만 번호대로 줄 앉아 줄래?”라고 부탁드립니다. 학생들 이름을 다 외우면 약속대로 ‘번호대로 앉기’를 해제합니다. 제가 자리를 배정하는 방법은 ‘컴퓨터님께 한 달 운명을 맡기기’-자리 배정 프로그램 돌리기-입니다. 이 때 학생들과 상의를 해서, 눈이 나쁘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들은 미리 배려합니다.

타. 감사일기 : 아이들에게 공책을 하나씩 마련하게 한 다음(선생님들이 한 권씩 선물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매일 부담없이 “1. ~해서 다행이야. 2.~해서 참 고마워. 3. 특히 ~에게 참 고마워. 4. 나 오늘 이것 참 잘했어. 칭찬해. 고마워, **야!” 이렇게만 쓰도록 하라고 했었습니다.⁶⁾

파. 저는 2월에 학생들 명렬이 나오면 네임택을 주문해 놓았다가 생일날 정성껏 쓴 엽서와 함께주었습니다. 3월 2일에 제 탁상 달력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 생일을 쓰도록 했습니다.

하. ‘우리반의 숨은 별을 찾습니다’ : 저는 해마다 ‘우리반의 숨은 별을 찾습니다’라는 설문조사를 학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2020년에는 네이버폼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학생부 자율활동란에도 기록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주는 모범상 추천에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담임이 직접 상장을 만들어 시상하기도 합니다.

가. 우리반 친구의 장점 쓰기 : 2학기 말에 네이버폼을 활용해 우리반 친구의 장점을 쓰도록 합니다. 네이버폼을 내주기 1, 2주 전부터 학생들에게 이것을 알리고, 그 동안 다른 친구들의 장점을 잘 관찰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써낸 결과물은 놀랍습니다. 교사가 미처 보지 못한 친구의 장점을 섬세하게 보는 학생, 친구들의 특성을 놀라운 통찰력으로 발견해내는 학생들은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결과물은 교사가 학생을 더 깊이있게 바라보는 데도, 학생부를 기록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6) 몇 년 전에 다른 선생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따라했는데, 효과가 좋았습니다. 2019년에는 처음 만난 남자 중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하느라,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미리 계획해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급회의의 효과는 이 외에도 매우 많습니다. 학기 초에 유난히 조용하고 썰렁하고 모래알처럼 제각각이었던 반 분위기가 2학기에는 몹시 시끄럽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둠활동을 위주로 하는 국어 시간에는 다른 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했습니다. 담임 입장에서는 학생부 ‘자율활동’에 쓸 것이 매우 풍부해졌습니다.

2. 갈등 해결은 이렇게!

가.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2020년에는 조금 덜한 편이었지만 재작년에는 저희 반에 크고 작은 다툼이 매우 많았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다투는 아이들에게 저는 한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다툼 후에는 담임에게 함께 달려온다. 담임은 화내지 않는다. 둘째, 함께 앉은 자리에서 먼저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부터 시작해 **싸움의 과정을 ‘복기’⁸⁾한다**. 이 때 반드시 상대방은 그 말에 **3초간 공감해 준다**.”

담임 : 자, 이제 재방송을 시작해 봅시다. 들은 사람은 3초 공감하기. 알죠?
 A : 국어시간에 하브루타를 하는데 재가 엄청 어려운 서술형 문제만 다 냈어요.
 담임 : 맞아요? / B : 네
 담임 : 그 때 A의 기분은 어땠어요?
 A : B가 공부 잘한다고 저를 무시하고 놀리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담임 : 자, 3초 공감하기!
 B :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해.
 담임 : 그래서 A는 B에게 어떻게 대했어요?
 A : 화내고 욕했어요.
 담임 : 그 때 B의 기분은 어땠어요?
 B : 나는 진짜 열심히 문제냈는데 A가 화내서 열받았어요.
 담임 : 자, 3초 공감하기!
 A : 욕해서 미안해.
 담임 : (웃으며) 근데 들어보니까 샘이 잘못했네. 아까 B가 서술형 내도 괜찮냐고 샘한테 물었는데 샘이 별 생각 없이 괜찮다고 했거든. 샘이 생각이 짧았네.
 A, B : (웃음)

‘복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두 아이가 모두 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아이들의 마음이 풀렸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학생과 담임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중2, 중3 남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들은 나의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이 시기의 학생들은 자신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

7) 담임의 이름을 합법적으로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은 회의를 통해 귀엽게 만들었습니다.

8) 바둑에 ‘복기’라는 것이 있죠? 바둑을 다 둔 후에 처음부터 어떻게 두었는지를 되새기는 과정입니다. 저희 반 학생들의 다툼에도 항상 이 ‘복기’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나 상대방이 화를 내면 자기도 화를 냅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첫째, 일단 바로 대응하는 것을 피한다.9) 둘째,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아이들 불러서 ‘나 전달법’으로 아까 담임이 속상했던 것을 이야기한다. 셋째, -대부분 둘째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이들끼리의 갈등에서처럼 ‘복기’한다. 넷째, 이 과정에서 담임이 잘못된 점이 있거나 오해했던 점이 있으면 즉시 사과한다.”

학생이,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낼 때 교사도 화가 납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상처받지 않고 모두가 이기려면, 누군가 한 명은 시간을 늦추어야 합니다. 아이보다는 철이 더 든 어른이 조금 기다려 주는 것이 모두가 이기는 길이겠죠? 이는 무엇보다도 교사 자신을 위하는 길입니다.

학생들과 오랜 기간 함께 하면서 제가 얻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기려고 하면 그 아이도 나를 이기려고 한다. 아이는 누르거나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할 대상이다.”

3. 온택트 시대의 학급 운영

2020년은 온라인수업과 등교수업을 번갈아가며 했던 해입니다. 2021년에도 적지 않은 날들을 이렇게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온라인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했던 것들입니다.

가. 학기초의 소개 활동 - 담임 소개, 학생과 학부모 설문조사(Ⅱ.3.가~다)는 학급 SNS와 네이버폼으로 합니다. 10)

C	D	E	F	G	H	I	J	K	L	M
2. 이름	3. 나의 역사. 간단히.	4. 함께 사는 가장 좋은 한 명의 이름. 나이 간단히 한 소개 나와 진 한 정도	5. 나의 멋진 점 자랑하기 (50자 이상 A/A)	6. 내가 고치고 싶은 점	7. 내가 제일 알 때(두 가지 이상)	8. 내가 제일 화날 때(2가지 이상)	9. 나는 이런 일들을 좋아해요.	10. 나는 이런 일들을 싫어하거나 못해요.	11. (중요) 내가 가지고 싶은 직업(1지망, 2지망)	11-1. (중요) 이 직업을 찾고 싶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N	O	P	Q	R		S	T	U		
12. (중요) 내가 가고 싶은 고등학교 이름, 장소(1지망, 2지망)	12-1. (중요) 이 학교에 가고 싶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13.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14.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정말 나빠요.	15. 선생님이 꼭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점(우리집 형편, 내 신체상 불편한 점, 나의 건강 상태, 아픈 곳, 누군가에게 괴롭힘 당하는 점 등등)을 써주세요.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겠습니다.		16. 이런 선생님이 돼주세요.	17. 쌤에게 이런 학생이 되고 싶어요.	18. 지금 나의 뇌구조		

나. 상담, 생일 축하, 알림 등도 학급 SNS로 합니다.

다. 조례 및 학급활동은 Zoom으로 합니다. 학급회의는 Zoom과 학급 SNS를 병행합니다. 모둠활동은 Zoom의 소회의실을 이용합니다. Zoom으로 조례를 하

9) 이는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함이기도 하고, 아이의 ‘분노’가 삭기를 기다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10) 앞에 적은 것처럼 문항을 만들어 네이버폼을 완성하고 ‘저장’을 누른 다음에 ‘미리보기’ 상태에서 주소를 복사하여 학급 SNS에 올리면 됩니다.

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아침 시간에 학생들이 더 이상 늦잠을 자지 않고 조레 후 수업에 잘 참여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얼굴을 봄으로써 더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라.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은 SNS로 합니다. SNS 상담의 좋은 점은, 평소에 낮을 가리던 학생도 매우 자유롭게, 길게 자기 생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 ‘우리반의 숨은 일꾼 뽑기’, ‘친구의 장점 쓰기’, ‘우리반에서 가장 필요한 학생은?’ 등의 각종 설문조사를 네이버폼을 활용해서 합니다.

IV. 학생들과 함께 학급 운영하기

2019년과 2020년에 함께 했던 학생들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 보았습니다. 교사마다 학급 운영 철학이 다를 것이고, 학급마다 학생들의 특성과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제가 쓴 글은 하나의 예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글이 선생님들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는 하나의 의견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지만 코로나 19의 상황에서도 방법은 있었습니다. 얼굴을 마주 하는 것에서 기계의 힘을 빌리는 것으로 조금 방법이 바뀌기는 했지만, 결국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며 함께 학급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점에서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2020년에 깨달은 점입니다.

학급 운영을 위한 저의 모든 자료들은 앞서 소개한 저의 블로그에 있습니다. 지면 관계상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들은 질문해 주시면 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새로운 시작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 참여식 연수 계획

차시	내용 및 방법	형태	준비물
2/2	1. 주제 : 학생들과의 갈등 상황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복기’해 봅시다. 2. 방법 : 소회의실에서 서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모둠 토의	열린 마음

※ 참고 문헌 및 사이트

<http://blog.daum.net/nojeong> (교사들을 위한 본인의 블로그임)

<http://cafe.daum.net/no0301> (학생들의 수업 결과물 및 여러 자료를 올리는, 본인의 수업 카페임.)